

研究論文

식민지 시대 기생 연구(I)
- 기생집단의 근대적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

서 지 영*

I. 머리말	III. 기예와 섹슈얼리티의 분화
II. 제도와 현실 사이: 기생창기	I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 문화사에서 ‘기생’은 모호하고도 다면적인 복수의 기호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얼굴을 가진 기생 집단 자체의 특수한 존재양식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그러한 기생의 존재양식은 결코 쉽사리 파악되지 않는데, 일차적으로 이는 기생에 대한 공식 기록의 미비함에 기인한다. 하지만 기생 연구의 어려움은 이러한 자료의 양적인 부족 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생된다. 그것은 바로 기생에 대한 기록들이 기생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들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기생은 전근대 시대와 근대에 이르러서도 신분적·성적 타자로서 스스로 자기서사의 주체일 수 없었던 존재였다. 따라서 기생의 역사적 존재성을 탐색하는 작업은 ‘사실에 대한 복원’이라기보다는 기생을 ‘구성’한 텍스트들 내부의 다양한 층위와 재현의 욕망을 읽어내는 작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기생에 대한 논의는 먼저 유교적 명분 속에서도 기생의 몸을 통해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효율적으로 향유했던 전근대 시대에서 시작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국문학 전공.

기제도는 예악정치와 신분제의 토대 아래 여악(女樂)의 이름으로 운용되었는데, 여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념적 명분론과 그들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였던 현실론의 끊임없는 충돌 속에서 기생은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관리되었다. 또한 공적(법제적) 차원에서 가무연행과 성적 봉사를 포함하는 기생의 노동은 관기(官妓)의 직역으로 요구되었지만, 비공식적(현실적) 차원에서 이들의 몸은 개별 양반 남성들에 의해 끊임없이 사유화(私有化)되는 이중 구조 속에 자리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선시대 제도의 여악(기녀)의 운용은 한말과 식민지 시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전이된다. 신분제의 해체 속에서 관기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생들은 전근대 시대의 통치 체제를 대체한 식민지 권력에 의해 또 다른 형식의 모순적 전이를 겪는다.

본 연구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를 관통하면서 변화를 요구받았던 기생들에 주목한다. 이는 전대(前代)의 기생이 가졌던 특수한 존재 조건이 식민지 근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떠한 변모를 겪는지를 살피는 작업일 뿐 아니라 그러한 외적 변화가 수반한 기생 집단 내부의 새로운 존재양식에 대한 탐색이다.

지금까지의 식민지 시대 기생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측면으로 이루어져왔다. 첫째, 기생을 식민지 시대 식민 정책 및 공창제도의 도입 속에서 다루는 논의들은 식민권력에 의해 변형되고 왜곡되었던 기생 집단 외부의 현실을 문제제기한다.¹⁾ 두 번째, 음악사회사 및 무용사에서 기생조합 및 그들의 공연 활동 양상을 통해 예인 집단으로서의 기생을 실증적으로 규명해왔는데, 이는 조선시대 가무 담당자

1) 지금까지 대한제국기와 일제시대 기생에 대한 사회 역사적 연구는 일제에 의한 근대공창제도 시행 관련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 식민지 정책 속에 기생이 배치되는 과정과 기생조합의 법제적 구성에 대한 논의로서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일지사, 1996); 山下英愛 『한국 근대 공창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1991);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 기생 단속령 >, < 창기 단속령 >: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40호(1998); 강정숙, 「대한제국·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호(1998) 등이 있다. 또한 일제 식민권력의 다양한 표상행위 속에 포섭된 기생 이미지를 도상학적으로 분석한 논의로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12호(2001);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가 주목된다. 그밖에 기생 제도에 침투한 근대의 시선을 문제제기한 논의로 권희영, 「호기심어린 타자: 구한말-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 『사회와 역사』, 65집(2004)이 있다.

로서 여악의 전통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²⁾

이러한 일제 공창정책의 희생물과 근대 예인으로서의 기생의 입지는 식민지 시대 기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틀의 안팎에서 기생이 겪은 다양한 변화와 의미는 아직 심도 있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전근대와 근대를 관통하여 존재론적 전이를 겪은 기생에 대한 통시적 탐색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공창과 예인이라는 극단적 두 이미지로 자리하고 있는 기생집단 내부로 들어가 근대 기생의 존재양식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식민지 시대 공식기록물과 총독부 촉탁 풍속지 자료, 신문 및 잡지기사, 기생 및 권번 관련 회고자료 등을 대상으로 삼는다.

II. 제도와 현실 사이: 기생/창기

1. 시선의 충돌과 명명의 혼란

기생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는 근대 이후에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띤다. 관기제도의 해체 과정에서 기생이 겪은 새로운 변화는 그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의 등장과 맞물린다. 여기서 시선이란 새로운 향유주체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음악사회사에서의 기생조합의 형성 과정 및 기생들의 공연활동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 음악 연구』, 29권 1호(2001); 권도희, 「기생조직의 해체 이후 여성국악인들의 활동」, 『제7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 안팎에서 본 한국음악연구 방법론』,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2002a);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 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3); 송방송,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예기들의 공연활동 192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제성경린선생구순기념 국악학 논총』(국악고등학교동창회, 2000); 송방송, 「한성기생조합소의 예술사회사적 조명」, 『한국근대음악사연구』(민속원 2003a); 송방송, 「대한제국 시절의 진연과 관기들의 정재공연 『고종신축년진연의례』의 정재여령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회 논문집』, 1호(2003b); 이재옥,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30집(2003);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2004a);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유성기음반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2004b); 김영희, 「“藝壇一百人”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0권 2호(1999); 김영희, 「《매일신보》에서 찾는 한국춤사』(1~20), 『몸』, 2001.7~2003.4 등이 있다.

기생의 외적·내적 변화는 일차적으로 그들에 대한 명칭의 변화에서 발견된다. 조선 시대에도 기생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였다. 그들은 ‘여악의 일원으로서 공식 의례에서 ‘여공인(女工人),’ ‘여령(女伶),’ ‘기악(妓樂),’ ‘여가(女妓)’ 등으로 불려졌으며, 사적인 층위나 일상 공간에서 그들은 ‘기생(妓生),’ ‘기녀(妓女),’ ‘창가(娼妓 倡妓)’ 등으로 불리었다.³⁾ 그런데 여기서 당대 기생을 지칭하는 ‘창(娼)’이라는 호명에는 기예를 공급하는 전문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사적인 연회에 동원되면서 성적 향유의 대상으로 기능하였던 전근대 기생의 존재성이 함축되어있다.

18세기 말, 민간 풍류현장에서 이름을 떨쳤던 가가(歌妓) ‘계섬의 경우, 최고령(60세)의 나이로 1875년 화성에서 베풀어진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에 ‘선창여령(先唱女伶)’으로 참가할 정도로 탁월한 기예를 보였던 기생이다.⁴⁾ 하지만 ‘선창여령’이라는 공식적 명명과는 달리, 사적으로 그녀를 회고하는 양반의 글 속에서 계섬은 ‘名娼’으로 호명되고 있다.⁵⁾

조선시대 기생의 내부에는 궁중에 선상된 일급관기에서 지방관아의 수청기나 사신접대를 맡은 방기(房妓), 변방 군사의 위안부에 이르기까지 위계와 차이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계섬의 경우에서와 같이, ‘娼’이라는 호칭은 그러한 위계에 상관없이 기예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야했던 전근대 기생의 사회적 조건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러 민간 풍류현장 속에서 발견되는 일급관기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을 통해서 재확인된다. 가객 안민영의 가집에 등장하는 민간 풍류공간에서 일급 명기(名妓)는 “재예(才藝)가 출중하고 색태(色態)가 비범한” 기생을 의미하는 ‘명화(名嫻)’로 불리어졌다.⁶⁾ 당대 뛰어난 남성 가자(歌者)들에게 ‘名唱’이라는 호칭이 부여되었음에 비해 ‘명화’는 예인으로서 전근대 시대 기생의 입지를 드러낸다.⁷⁾

3) 김중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민속원, 2001), 144~145쪽

4) 송지원, 「여성음악가 계섬」, 『문헌과 해석』 23호(2003), 36쪽

5) “桂織京師名娼也 本松禾縣婢 家世縣吏”(沈魯崇(저)/김영진(역), 「桂織傳」, 『눈물이란 무엇인가』(태학사, 2001), 252쪽(밑줄필자)).

6) 安玟英(저)/김신중(역), 『金玉叢部 周翁漫詠』(박이정, 2003), 138~139쪽

7) ‘명희(名嫻)’는 조선시대 여악으로서의 관기의 공식적 이미지가 약화되고 조선후기 민간의 풍류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당대 가객 및 좌상객들과 예술적, 성애적 교류를 이루었던 일급관기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다(安玟英, 위의 책, 58쪽). 신경숙은 당대 대원군의 총애를 받으며 운현궁의 대령기생으로 차출되었으며 가객 안민영과도 특별한 관계를 이루며 명희(名嫻)로 칭송받았던

그런데, 궁중이든 민간의 풍류현장이든 관기로 대표되는 기생의 입지는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점차 변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1880년대의 한 기록에 이미 민간 풍류공간에서 관기와 창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발견된다.⁸⁾ 이러한 기생계 내부의 변화는 한말에 등장하는 ‘삼패’의 존재에서 가시화된다.

한말에 기생과 삼패는 레파토리로 뚜렷이 구별되었는데, 본래 기생은 가곡, 가사, 서예, 정재무 외에는 절대 하지 않았고, 삼패들은 시조, 잡가 등 무엇이 나 구김없이 부를 수 있어 노래를 듣는 품은 기생보다 훨씬 멋들어졌다.⁹⁾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일급 예인으로서의 관기(일패)에 대응하여 비관기 출신의 천민 여성 예인 집단인 준기생, 또는 유사 기생인 ‘삼패’가 등장하면서 기생의 범주는 확장된다.¹⁰⁾ 이들은 가곡을 중심 레파토리로 하는 일급관기와는 달리, 대중적인 레파토리인 잡가류를 부르고 가창 외에 매음을 일삼는 행위로 인해 급이 낮은 부류로 평가되었지만, 당시 평민계층으로 확산된 풍류문화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한다.¹¹⁾

‘육소산’에 대해 세밀하게 조명하고 있다(신경숙, 「19세기 일급 예기의 삶과 섹슈얼리티」, 『사회와 역사』, 65집(2004) 참조).

8) “예전 예(例)에 관기는 판여(板輿)를 타고 긴 장옷으로 전신을 감싸면서, 낮만 내어 놓았다 창녀는 감히 판여를 타지 못해서 관기와 구별하였는데, 풍속이 점점 문란하여져서 관기와 창녀를 거의 식별할 수 없게 되었다. 관기와 창녀가 모두 난교(緩轎)를 타며, 안경을 쓰고 실로 수놓은 신을 신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 금단하여 예전대로 판여를 타고 검은 신을 신도록 하였다(박재형 저/이익성 역), 『근세조선정감』(탐구당 1974), 106~107 쪽.

9) 이창배, 『한국 가창 대계』(홍인문화사, 1976), 163쪽.

10) 음악사적으로 볼 때, ‘삼패’는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활동한 기녀의 아류집단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강 마포지역, 남대문 밖, 탑골공원 뒤편의 酒家나 색주가를 배경으로 활동한 이들은 큰머리(가채)를 드러우지 않았다는 의미로 ‘더벅머리’로 불리었으며 관기 출신 기녀들이 가곡과 가사를 고수한 반면, 삼패는 시조나 현행 긴잡가와 같은 대중적 레파토리를 주로 불러 시정의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권도희, 「19세기 여성음악계의 구도」, 『19세기 음악사회』 제5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지,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2002. 9. 6)). 이보형에 의하면 조선후기에 서울문안이나 근교에서 수공업이나 원예, 상업에 종사한 평민집단 중에서 가사나 시조를 전문으로 하는 음악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가곡을 주 레파토리로 하는 중인층 가객들이 관기 출신의 여창가객을 상대하였다면, 평민가객들은 삼패출신의 여성음악인과 상대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보형, 「가객집단의 유형: 평민가객집단을 중심으로」, 『19세기 음악사회』 제5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지(2002. 9. 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2002)).

갑오개혁(1894)으로 공사노비제가 폐지된 이후, 관기는 법적으로 천민신분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비록 관기의 신분은 해체되고 궁중의 음악기관인 장악원이 1897년에 교방사로 그리고 1907년 장악과로 축소, 개편되었지만¹²⁾ 대한제국기(1897~1907)에 여악의 전통은 어느 정도 그 명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대 초의 두 차례의 진연과 이후 협률사, 관인구락부, 원각사, 장안사, 연흥사, 광무대 등 사설극장 무대에서 궁중 정재의 레파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관기의 공연 전통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¹³⁾

그러나 이 시기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일급 기생인 관기(일패)와 비관기 출신인 삼패가 동시에 무대에 서면서 위계의 균열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¹⁴⁾ 이는 바로 기생집단에 대한 명명의 변화 또는 혼란에서 증명된다. 1900년대에 기생 집단은 관기/삼패의 구분 없이 관립극장 협률사(1902)와 여러 사설극장, 연흥사(1907), 단성사(1907), 장안사(1908)를 중심으로 가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신문기사에서의 기생 모집 기사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자료는 고종황제의 어극 40주년을 축하하는 청경 예식을 위해 궁내부에 만들어진 협률사에서 공연활동을 할 기생을 조직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이다.

<자료 1>

三牌諸家 금번 청경례식에 기성과 녀령을 불가불 준비할지라 삼패의 도가를 봉상시 근처로 설시하고 어느 참령이 유간하야 각처 삼패를 모집하야 노리흐는 기성을 삼포 노래 못흐는 삼패는 녀령으로 마련한다더라(《제국신문》)

-
- 11) 그러나 이러한 삼패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한말과 식민지 초기까지도 일급관기가 기생계를 대표한다는 인식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妓生으로 말하면 그 學習이 오직 聲樂으로 時調 歌詞, 絃樂으로 玄琴, 伽倻琴, 또 舞蹈 等に 限하였고, 雜歌나 唱劇調 같은 것은 絶對禁物이었으니 이것이 곧 妓生의 操라는 것이다”(정노식, 『朝鮮唱劇史』(조선일보출판부, 1940), 233쪽).
- 12) 권도희, 앞의 논문(2001), 322~323쪽; 송방송, 앞의 논문(2003a), 76~77쪽.
- 13) 송방송은 고종의 탄신 50주년을 기념하는 신축(辛丑)년(1901) 진연과 고종의 등극 40주년을 기념하는 임인(壬寅)년(1902) 진연 의례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의 정재공연과 정재를 담당했던 여령들에 대해 상세하게 조명하고 있는데, 이는 여악의 전통이 대한제국기를 거쳐 1908년 이후 기생조합의 설립 과정으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송방송, 앞의 논문(2003b), 102~146쪽).
- 14) 20세기 초 삼패의 등장으로 인한 기생계의 구도의 변화는 권도희, 앞의 논문(2001), 324~325쪽 참조.

1902년 8월 15일).

위 기사에서는 과거 일급관기가 중심이 되었던 궁중 진연행사를 위해 ‘삼패’를 모집한다는 표현에서 ‘삼패’가 관기의 역할을 대체하는 당대의 정황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과거 진연의 정재 여령 중 노래를 맡은 ‘가차비(歌差備)’ 역할을 삼패 가운데서 뽑아 ‘노래하는 기생’으로 삼고, 여령 가운데 춤을 추는 무차비(舞差備)를 ‘노래 못하는 삼패’에게 맡겨 여령으로 삼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관기 중심의 여악제도가 점차 무너지가는 1902년의 현실의 일면을 잘 보여준다.¹⁵⁾ 고종의 청경 예식에 관련된 또 다른 기생 모집 기사 역시, 궁중 공식 행사에 관기와 삼패가 동시에 모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료 2>

“妓司新規 傳說을 聞ᄃᆞᆫ 則 近日 協律司에서 各色 娼妓를 組織ᄃᆞᆫ디, 太醫院 所屬 醫女와 尙衣司 針線婢 等を 移屬ᄃᆞᆫ야 各曰, 官妓라 ᄃᆞᆫ고 無名色 三牌 等を 并付ᄃᆞᆫ야 各曰 藝妓라 ᄃᆞᆫ고 新音律을 敎習ᄃᆞᆫ디 또 近日 官妓도 自願新入 者가 有ᄃᆞᆫ면 各曰 預妓라 ᄃᆞᆫ고 官妓藝妓之間에 處ᄃᆞᆫ야 無夫治女를 許付ᄃᆞᆫ디 勿論某人ᄃᆞᆫ고 十人二十人이 結社ᄃᆞᆫ고 預妓에 願入ᄃᆞᆫ 女子를 請願ᄃᆞᆫ면 該 司에서 依願許付ᄃᆞᆫ 次로 定規ᄃᆞᆫ앗다더라(《황성신문》 1902년 8월 25일).

이 기사는 협률사에서 ‘창기(娼妓)’를 조직하는데, 그 하위에 ‘관기’로 호칭되는 태의원 소속 의녀, 상의사의 침선비를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창기의 또 다른 일원인 ‘무명색,’ ‘삼패’는 합쳐서 ‘예기(藝妓)’라 지칭되고, 새로운 관기 지원자는 ‘예기(預妓)’라 명명된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되는 기생집단에 대한 명명의 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15) 조선 후기 의궤 자료에서 궁중진연의식에 동원된 관기는 여령으로 불리는데, 이들은 실제 정재를 담당한 정재여령과 의장(儀仗)을 들거나 연향을 돕는 시위(侍衛)여령으로 나누어지며, 정재여령은 다시 춤을 추는 무차비(舞差備)와 노래를 부르는 가차비(歌差備)로 나뉘었다(김중수, 「19세기~20세기 초 궁중연향의 악가무차비(樂歌舞差備) 고찰: 여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2 권(2002), 131~135, 260~261쪽). 여기서 ‘차비’는 “특별한 일을 맡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용할 때 쓰는 용어”이다.

체기한다. 첫째, 기생 전반을 대표하는 상위명칭에 관한 점이다. 여기서 관(일패)/은근자(이패)/삼패를 통괄하는 상위 항이 이전의 ‘여악’이나 ‘관기’가 아니라 ‘창기(娼妓)’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1883년, 박제형의 『근세조선정감』에서는 비록 관기와 창녀의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여악의 전통을 잇는 관기가 중심이 되고 있다.

하지만, 1900년대 초 신문이나 잡지기사, 당시 총독부의 공식문건과 풍속조사 자료집 등에서의 기생에 대한 명명과 분류를 살펴보면, 기존 여악의 일원인 ‘관기’가 중심축이 되었던 기생 집단이 ‘갈보’, ‘창기’ 또는 ‘매춘부’로 항목화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법의 변화는 식민지 시대 총독부 촉탁 풍속자료 속에서 동일하게 확인된다. 恒屋盛服은 1904년 간행된 『朝鮮開化史』에서 기생 전반을 ‘갈보(蝸甫)’로 일원화하고 하위범주로 일패, 이패, 삼패를 제시한다. 여기서 갈보란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충의 이미지인데¹⁶⁾ 이렇게 기생을 혐오스럽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규정하는 양상은 이후 식민지 시대 기생을 기술하는 자료와 공식담론들 속에서 빈번히 발견된다.

1909년에 쓰인 今村靑의 「朝鮮の賣春婦」 역시 상위개념으로 ‘매춘부’를 설정하고 그 내부에 ‘妓’와 ‘갈보’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본격적인 기생사회사로 평가되는 李能和의 『朝鮮解語花史』(1927) 또한 35장에서 「갈보종류총괄」이라는 항목을 통해 유녀-蝸甫-창녀를 상위범주로 두고, 그 내부에 일패, 이패, 삼패 기생을 포함시키고 있다.¹⁷⁾

이러한 분류기준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전근대 시대 내부의 문화적 질서 속에서 기예의 등급을 기준으로 기생 내부의 위계를 설정하였던 패러다임의 해체를 의미한다. 이는 실질적으로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에 침투한 외부로부터 시선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을 창기로 규정하는 식민권력의 시선 내부에는 기

16) “蠅(빈대)이라는 것은 중국말에 이르러는 바, 臭虫(냄새나는 벌레)이다. 밤에 나와서 피를 빨아서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로서 창녀의 비유가 된다”(李能和(저)/이재곤(역), 『朝鮮解語花史』(동문선 1992), 442쪽).

17) 박제형, 앞의 책, 106~107쪽; 恒屋盛服, 『朝鮮開化史』(東京: 博文館, 1904), 338~339쪽; 今村靑 「朝鮮の賣春婦」, 『朝鮮風俗集』(경인문화사, 1990), 300쪽; 李能和, 앞의 책, 442쪽. 한편, 1924년 『개벽』(1924. 6)에 일기자(一記者)가 쓴 「경성의 화류계」에서는 기생을 상위범주로 하여 일패, 이패, 삼패로 구분하고 있다.

생을 구성하는 조건 가운데 기예보다는 섹슈얼리티를 초점화하여 기생을 바라보는 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관(官) 또는 기부와 종속관계 속에서 기예와 섹슈얼리티가 미분화된 채 발현되었던 전근대 기생은 외부시선에 의해 근대적 매춘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¹⁸⁾ 이러한 현상은 당대 공식담론들을 통해 삼패들과는 격이 다른 기생들까지 삼패와 같은 매음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양산한다.¹⁹⁾ 이러한 당대의 시선은 기생들 역시 기부에 종속된 존재로서 매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정황을 문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 2>에서 제시되는 ‘예기(藝妓)’라는 호칭이 지니는 가변성에 주목할 만하다. 위 자료에서 관기에 비해 격이 낮은 무명색이나 삼패에게 ‘예기(藝妓)’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가무 공연자로 승격시켜 공연에 끌어들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바로 근대 시기, 기생이 소유하고 있는 ‘기예’를 대중 예술의 산업적 구도 속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기생 집단 내부에서는 실질적으로 관기와 삼패 간의 위계가 존속하였고 이들 간의 충돌이 잦았음에도 불구하고²⁰⁾ 이들에게 ‘藝妓’란 명명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대중적 흥행을 위해 이들을 무대에 함께 서게 만들었던 점은 전대(前代) 기생의 기예가 가지는 계층적·미적 가치를 약화시키면서 이들을 모두 상품적 가치로 재배치하는 근대적 시스템 속에 기생들이 편입되는 양상을 보여준다.²¹⁾

18) 식민지 시대 기생에 대한 근대의 시선을 먼저 문제 삼은 논의로 권희영의 글을 들 수 있다. 그는 “기생, 창기, 갈보에 대한 범주의 뒤섞임을 통하여 우리는 흔히 문란으로 표현되는 전통적 범주의 해체와 새로운 분류법의 도입을 보게 된다”고 지적하고, 20세기 초 권력과 醫 권력의 등장과 개입을 통하여 예인으로서의 기생이 매춘 혹은 매음녀로 분류되고 전락하는 과정을 살피고 있다 (권희영, 앞의 논문, 112-129쪽).

19) “娼妓革新 我國 京城에 所謂 娼妓가 二種이 有호니 日曰 官妓오 二曰 三牌인디 有夫賣淫은 一般 이라. 其花價가 同一高價인즉 此는 世界各國에 所無한 아니라 韓國十三道에도 所無호者인디 惟獨 京城에서 此例가 有호므로 內部에서 이를 革新코자”(《황성신문》 1908년 7월 16일자).

20) 《황성신문》 1909년 4월 8일 기사는 삼패와 기생의 갈등과 충돌을 다루고 있다. “日昨 新耕日 에 淸涼寺에서 妓生某(或云 黠絲)와 二牌 一人이 互相爭鬪호는디 其 裏由인즉 妓生이 二牌를 對호야 無端히 辱호야 日 더년의 名色이 무엇인고 호즉 二牌가 風聽호고 大怒호야 該妓生과 頭髮을 互把호고 이년더년호며 無限 鬪호는디 該妓生을 率來호 愛夫 及 乾達 등이 妓生을 擁護호고 他處로 隱匿호았더니 該二牌가 憤念不勝호야 逢人則 日 何許妓生이 我을 無端히 詬辱호았스니 該妓를 覓給호면 大墳을 解호깃노라 호고”

2. 초기 '기생/창기조합' 구성의 실제

전근대에서 근대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기생 내부에 일어난 변화와 명명의 혼란은 기생에 대한 식민권력의 법령이 공포된 이후 더욱 가시화된다. 1908년 9월 일제는 <경시청령> 제5호로 「기생단속령」과 제6호 「창기단속령」은 관기, 여령, 기생, 삼패, 창기, 색주가, 무명색, 상화실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던 기생 집단을 '기생'과 '창기'라는 두 명칭으로 단일화한다. 이 법안에 부가된 “*妓生에 관한 諭告條項*”을 살펴보면, ‘기생의 범주는 “소위 기생이란 구한말에 ‘관기’라 불렀던 자까지 포함하는 총칭”이 된다. 한편, “*娼妓에 관한 諭告條項*”에서는 ‘창기의 범주’는 ‘매음’을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상화실, 갈보, 색주가, 작부를 총칭”한다.²¹⁾

이러한 법령으로 인해 당대 기생들은 창기와 마찬가지로 기업(妓業)을 위해서 모두 경시청의 인가를 받아야하고, 종래 기업(妓業)을 위해 의존하였던 기부와 일대일 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받는다.²²⁾ 비록 기생과 창기를 공식적으로 구분하기는 하였지만, 조합을 매개로 하여 기생들이 총독부의 관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생과 창기는 동일한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²⁴⁾

21) 식민지 시대 ‘예기(藝妓)’라는 용어는 처음부터 이중적으로 사용되었다. 1900년대 초기 일본거류지의 영사관에서 발표한 단속규칙 속의 ‘요리잡’과 ‘예기’는 일본 국내의 ‘대좌부’, ‘창기’의 뜻을 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山下英愛, 앞의 논문, 12쪽). 따라서 기예를 중심으로 하는 갑종1종 예기와 일본인 매춘부를 뜻하는 을종(2종) ‘예기,’ 그리고 권번 기생들이 활동하였던 1종 요리점과 매춘이 이루어진 2종 요리점은 구분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명은 매춘의 공식적인 도입을 은폐하기 위한 일체의 수사적인 전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藝妓’가 객석에서 가무음곡을 하는 존재(‘기생’)로 공식화되는 것은 1916년 3월 31일자, <경무총감부령> 3호, 「*藝妓酌婦 置屋營業取締規則*」에서 확인할 수 있다(손정목, 앞의 책, 444~445쪽).

22) 「*妓生及娼妓ニ關スル 書類綴*」(168~170),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편), 『서울학 사료총서 7: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편(I)』(1995). 이하, 본문에서 위 자료의 인용은 「*書類綴*」(페이지수)로 표기

23) 「*書類綴*」(159~160). 기부에 대한 제한사항은 「기생 및 창기단속시행심득」 제3조 참조 「*書類綴*」(171)).

24) 송연옥, 앞의 논문, 261쪽. 기존 연구에서 당시 기생은 창기와 달리 성병검사를 의미하는 건강진진을 받지 않았다고 논의되어 왔으나, 「기생조합의 규약 표준」 제7조에 “조합은 매월 한번 경시청이 지정한 의사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며, 전염 병독에 걸린 자는 치료소에 수용토록 할 것”이라는 조항이 있다 「*書類綴*」(166)). 「기생 및 창기단속령 시행심득」에서 기생 및 창기가 기업(稼業) 신고 시 제출할 사항 중에 기생의 경우는 遊藝師匠(기예스승)의 주소와 이름이 요구된 반면, 창기의 경우 ‘건강진단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등 「*書類綴*」(172)), 창기에게 성병검사의 의무가 더 강력하게 작용되지만, 당시 법령은 초기부터 이미 기생들도 매춘 관련 대상으로 범주

이렇게 통치 권력이 제기하는 이분법적 명명은 기생집단 내의 다면적 현실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제기한다. 먼저 기생 창기의 분류법에서 ‘창기’란 용어는 문제적이다. 여기서의 ‘娼妓’는 전근대 시대 명명된 ‘娼妓’와는 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즉, 전근대 시대 ‘娼妓’의 개념 속에는 ‘기예’가 중요한 자질로 요구되지만, 식민자의 시선에서 1900~1910년대에 쓰인 ‘창기’는 몸을 파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보다 초점화하는 개념으로 단일화된다.

1908년 경시청에서 공포하는 「창기단속령」에서 ‘창기’는 “상화실, 갈보, 색주가, 작부”를 총칭하는데, 여기서 ‘삼패’를 의미하는 ‘상화실’은 비록 관기에 비해 격은 낮지만 기예를 보유한 전근대식의 ‘娼妓’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색주가’와 ‘작부’는 기예가 다소 떨어지는 주상(酒商)의 접대부이고, ‘갈보’는 근대적 시선에서의 전형적인 창기에 가까운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매음을 행하는 여성들’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근대적 공창의 범주로 함께 묶이게 된다.

여기서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동시적으로 공급해왔던 전근대적 娼으로서 ‘삼패’는 근대적 창기로 온전히 재규정될 수 없는 중간적 지점에 위치함을 발견할 수 있다. 삼패의 이러한 특수한 입지는 그들이 활발한 기예 공연활동을 통해 이후 ‘藝妓’라는 칭호를 얻으며 마침내 ‘기생’으로 승격하는 현상을 통해 확인된다.²⁵⁾

매음만을 주업으로 하는 근대적 창기는 1916년 3월 31일에 발표된 <경무총감

화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송연옥은 《대한매일신보》 1909년 3월 13일자 기사에서 이미 관기에게도 창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명이 요구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송연옥, 앞의 논문, 143쪽), 1916년 <경무총감부령> 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취체규칙」 1 조 6 항에서 藝妓 조선인은 妓生에게 「건강진단서」가 공식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朝鮮總督府官報》 제095 호 443 쪽, 《동아일보》 1923년 9월 10일자 「중로경찰서의 妓生健康診斷」 기사, 《동아일보》 1925년 2월 26일자, 「수원기생들의 검진(1주일 한번)」에 대한 항의 기사, 《동아일보》 1925년 3월 29일자, 「개성권변과 야명권변 기생 일동이 결의하여 검사제 철폐를 요구」한 기사, 《동아일보》 1926년 4월 21일자, 「花柳村에 大鐵柵, 오월륙일부터 기생 건강진단 약병잇스면 영업을 정지 식혀」 등에서 실제적으로 확인되는 기생검진 문제는 기생을 점차 공창으로 편입시켜가는 제도적 변화 및 공식적 시선과 이를 완강히 거부하는 기생집단 내부의 시선이 충돌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20세기 초기 매춘부검진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과 이에 대한 매춘 여성들의 반응은 권희영 앞의 논문 참조.

25) 시국 삼패들이 창기조합에서 기생조합으로 승격하는 때는 1916년경(《매일신보》 1916년 5월 21일자, 「기생된 신창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장유정 앞의 논문(2004a), 112~113쪽, 강정숙, 앞의 논문, 232~233쪽 참조.

부령> 제4호 「대좌부 창기취체규칙」에서 지칭하는 ‘창기라 할 수 있는데²⁶⁾ 1900~10년대 당시 동일하게 창기로 명명되었던 ‘삼패’와 1916년 이후 확산된 일본인 거류지인 신정과 미생정 등의 유곽지역에서의 ‘노예적 창가’는 어느 정도 그 성격을 달리함을 알 수 있다.²⁷⁾

또한 식민 제도의 분류법과 당대 기생의 현실 사이의 합치되지 않는 모순과 혼란은 초기의 ‘기생/창기조합’의 구성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최초의 기생조합의 설립은 1908년 경에 시도되었는데, 이는 1908년 9월 17일 <경시청령> 제5호, 「기생단속령」과 6호 「창기단속령」이 발표되기 몇 달 전이다. 1908년(융희 2년) 6월 5일자로 경시청에 ‘경성유녀조합’라는 이름의 청원서가 제출되었는데, 일차적으로 경성유녀조합은 설립을 주도했던 발기인 47명 중 대표 김명완(南署薰陶坊詩谷 거주)이 남부 시곡의 삼패들을 관리하는 기부이며, 서류철에는 이들이 조합을 인가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 가운데 경성 내 시곡, 하교를 중심으로 삼패, 갈보, 주막부녀 등 매춘부의 건강진단을 위한 조합을 조직, 이를 인가해 줄 것을 청원한다는 내용의 문건이 있어 창기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임을 짐작케 한다(『書類綴』(151~152)).²⁸⁾

그런데 경성유녀조합청원서는 제출되었지만, 서류상으로 인가여부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단속령 발표 1년 후인 1909년 8월 26일자로 ‘경성유녀조합’ 때의 서류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한 ‘한성창기조합’ 청원서가 다시 제출되는데, 이때 기생

26)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令> 제4호 「貸座部 娼妓取締規則」, 《朝鮮總督府官報》 제1095호(1916. 3. 31), 445쪽. 그런데 <경무총감부령> 제2호, 「料理屋飲食店營業取締規則」; 제3호 「藝妓酌婦藝妓置屋營業取締規則」을 보면, 1908년 당시 ‘기생’과 ‘창기’로 이분화했던 명명법이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916년 법령에서는 ‘藝妓(조선인은 妓生)’, ‘酌婦’, ‘娼妓’로 삼분화되고, 이때 객석에서 가무음곡을 하는 자는 ‘예기(기생)’로만 한정하며 이들의 영업지역은 각각 요리집, 음식점, 대좌부(유곽)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朝鮮總督府官報》 제1095호, 441~444쪽).

27) 강정숙, 앞의 논문, 233쪽

28) 위의 논문, 210쪽. 그런데 경시청 서류철에는 경성유녀조합관련 문건들 사이에 “관기 참고문간”이 끼여있어 자료해석에 혼란을 주고 있다. 이 문건에는 당시 89명이나 되는 관기 출신의 기생 및 기부 명단을 제시하고 있는데, 송방송, 앞의 논문(2003a), 93쪽은 이들을 1908년 경성유녀조합 규약인가를 청원한 기생과 기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서류철 구성상의 착오로 판단된다. 이 서류철 앞부분에 색인을 보면, 맨 앞에 「경성유녀조합설립청원서송부건」이 있고 다음 항목에 「관기참고건」이 독립적으로 설정되어있다. 따라서 ‘관기문간’에 등장하는 기생과 기부는 경성유녀조합 구성원과 구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및 창기에 관한 論告條項이나 단속령시행 규칙 등 경시청령이 요구하는 여러 양식과 내부규약을 갖춘 “漢城娼妓組合” 설립 청원서가 제출되고, 1909년 8월 30일에 경시청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게 된다(『書類綴』(202)). ‘한성창기조합’ 역시 ‘경성유녀조합’ 청원서 받기인 대표였던 삼패기부 김명완이 여전히 상담역을 맡고 있으며, 창기로 명명되는 한연삼 남부 훈도방시곡 25 통 가1 호 이 받기인 대표로 자리하고 있는 점 등에서 경성유녀조합의 계통을 잇는 ‘창기조합’인 것으로 이해된다.²⁹⁾ 그런데 ‘한성창기조합’이 과연 삼패들로만 구성된 창기조합인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경시청 서류철에 수록된 ‘한성창기조합’ 관련 문건을 검토해보면, 후반부에 1910년 5월 11일 金香雲, 金梨花, 蘆採玉을 청원인을 포함하여 총 23명이 일본(大坂, 神戸, 京都 지역) 공연을 인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건이 있기 때문이다(『書類綴』(232~234)).

이 문건에 등장하는 8명의 기생, 金香雲, 金梨花, 蘆採玉, 劉桂玉, 金桂月, 金桂香, 趙玉仙, 鄭山玉은 경시청 서류철의 앞부분에 수록된 1908년 ‘관기참고건’에 등장하는 관기 명단 가운데 6명(향운, 이화, 채옥, 계옥, 계향, 산옥)과 동일하다. 당시 기생들의 기명(妓名)이 겹치거나 여러 개의 기명(妓名)을 쓰거나 바꾸는 경우가 많아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김향운과 김이화의 경우 비록 주소는 달라졌음에도 1908년과 1910년 문건에 모두에 동일한 기부 崔泰順(향운), 姜瑛欽(이화)과 함께 소개되고 있다. 그밖에 1910년대 ‘한성창기조합’ 문건에 등장하는 기부 金潤植, 金泰源도 1908년 관기문건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관기 출신의 기생과 기부가 한성창기조합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한성창기조합’이 가지는 성격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특히 당시 도일공연 계약서에는 이들 기생들이 악공들과 더불어 일본에서 공연한 레파토리가 제시되는데, 포구락, 가인전목단, 검무, 무고와 같은 정재와 여창가곡 등이 명시되어있어(『書類綴』(234))³⁰⁾, 1910년대 이들은 한성창기조합의 이름

29) 또한 서류철 자료 가운데 「한성창기조합조직상황」에서 ‘한성창기조합’이 “한성 내 창기 즉 상화실, 색주가, 갈보”를 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취체역을 맡은 한연삼뿐 아니라 부취체역 5명(박옥진, 고춘옥, 유옥향, 김창원, 이계향), 그리고 평의원 10명(이계화, 김나주, 황향란, 김향집, 피사동, 이옥엽, 김난주, 이나주, 유강진, 김성철) 모두 하교 중부 용산 시곡 상화실이나 중부, 남부, 동부 주상(酒商) 출신으로서 삼패 기생들로 추정된다(『書類綴』(197)).

30) 한성창기조합소의 도일공연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송방송, 앞의 논문(2003a), 101~104 쪽 참조

속에서 유부기 관기 중심의 공연을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성창기조합’과 관련한 또 다른 문건에서도 발견된다. 1910년 5월 20일에 연홍 외 9명(蓮紅, 鸚鵡, 蓮心, 杏花, 鳳心, 蕙蘭, 菊姬, 春外春, 蘭紅, 眞香)이 개성등으로 원각사 공연을 청원하는 문건(『書類綴』(235~237))에서도 연홍, 행화, 혜란, 진향이 1908년 경시청 서류철 “관기참고건”에 제시된 관기들의 이름과 일치한다.

한성창기조합은 애초에 한연심을 포함하여 총 362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이들이 삼패 중심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구성원들에 대한 명단이 제시되지 않아 구성원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들이 창기조합이란 명칭과 달리 관기들이 중심이 된 공연 활동을 도모한 점은 1909년 8월, 조합 결성된 이후의 변화로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이러한 명명과 조합의 성격의 불일치는 조합 형성 초기, 식민권력이 강제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가지는 내부의 모순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한성창기조합은 당시 신문기사 속에서 한성기생조합으로 명명됨으로써 현재에까지 혼란을 주고 있다. 하지만 당시 신문자료와 경시청 서류철자료를 대비해보면, 한성창기조합이 한성기생조합과 동일한 집단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¹⁾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0일자 기사의 경우, 경성고아원 경비를 보조하기 위해 원각사에서 일주일간 연주회를 개최함을 알리는 과정에서, ‘한성기생조합소’ 기생 25명이 자선연주 발기인으로 등장한다.³²⁾ 기생 25명 가운데, 蓮紅과 鸚鵡는 “한성창기조합” 관련 서류철 중 “원각사 공연 청원서”에 서명한 기생 10명 가운데 4명(蓮紅, 鸚鵡, 蓮心, 杏花)이 일치한다.³³⁾

31) 이는 송방송의 위의 논문에서 많은 부분 밝혀졌다.

32) “發起人 漢城妓生組合所 妓生 蓮紅, 鸚鵡, 弄月, 玉葉, 蓮心, 月出, 香心, 杏花, 蓮香, 錦香, 竹香, 月中仙, 瓊玉, 琪花, 蘭珠, 綠珠, 飛燕, 香姬, 梨花, 貂仙, 桃紅, 桃花, 翠香, 鶴姬, 初月”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0일자, 송방송, 위의 논문, 92쪽 재인용).

33) 이 명단에 있는 기생들 중에 경옥, 난주, 농월, 도홍, 도화, 비연, 옥엽, 이화, 취향 9명은 고종 신축년(1901) 덕수궁 함녕전에서 열린 진연에 출연했던 정재여령의 이름과 동일함이 밝혀졌다(송방송, 위의 논문, 94쪽). 또한, 《대한매일신보》 1910년 4월 10일에 소개된 ‘한성기생조합소’ 기생들의 이름을 1908년 경시청서류철 「관기참고건」과 비교해 보면, 25명 중 연홍, 농월, 옥엽, 행화, 향심, 연향, 금향, 죽향, 경옥, 이화, 초선, 비연, 도홍, 도화, 학희 등 15명의 이름이 관기명단에서 발견된다. 송방송, 위의 논문, 93~94쪽은 8명(瓊玉, 錦香, 琪花, 蘭珠, 弄月, 桃紅, 桃花, 飛燕, 蓮香, 蓮紅, 玉葉, 梨花)이 일치한다고 하였는데 훨씬 더 많은 관기들의 이름이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렇게 정재가무를 주로 했던 관기출신들이 한성창기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인해 당시 한성창기조합이 세간에 기생조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으며, 신문이나 각종 자료에서는 이를 “한성기생조합소”로 기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성창기조합’이 설립될 즈음에 나온 “妓倡團舍 警視廳에서 日作에 組合所 妓生 四名을 代表로 招待하야 生說喻하기를 妓生, 倡妓, 三牌, 賞花室 등 各種 名稱을 混合 團體하야 營業하라 하얏다더라”(《황성신문》 1909년 8월 19일)는 기사는 ‘한성창기조합’이 겉으로는 ‘창기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구성원은 경성 시동, 상화실 등의 삼패기생과 한말 관기출신의 기생들이 혼합된 형태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식민권력이 주도한 초기 조합의 구성은 법령이 명명한 ‘창기조합’도 아니고 ‘기생조합’도 아닌 혼성적 성격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전근대적 ‘娼’을 근대적인 방식으로 강제적으로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양산된 제도와 현실의 괴리 현상이라 할 수 있다.³⁴⁾

34) 현재 ‘기생조합’의 효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먼저 권도희는 창기조합의 시초로 1908년 경성유녀조합(1909년 한성창기조합으로 개칭)을 들고 관기 중심의 기생조합(한성조합 혹은 광고조합)은 1911년 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권도희 앞의 논문(2003), 135쪽. 이에 대해 장유정은 당시 ‘한성창기조합’을 창기조합의 효시로 보고 창기와는 구별되는 기생조합의 효시로서 관기 중심의 유부기 기생조합인 ‘한성기생조합’이 1908년 8월 경에 따로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다(장유정, 앞의 논문(2004a), 110~120쪽). 장유정의 경우, 1924년 6월 『개벽』지에 실린 「경성의 화류계」에서 “戊申[1908]에 漢城妓生組合(所謂 有夫妓組合 이니 前日 官妓를 中心으로 한 者)이 嚆矢로 創立되고”라는 기사와 1909년 전후 「한성기생조합」 관련 신문기사들(《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을 근거로 이를 주장하는데 특히 《황성신문》 1908년 10월 27일자 기사에서 “[妓生組合成立] 朴漢英 等 三十餘人이 發起하야 漢城內 妓生營業을 組合하야 風俗을 改良하기로 目的하고 規則을 諸定하야 警廳에 請願하얏다더라”라는 기사를 근거로 하여 공식기록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최초의 기생조합이 “한성기생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설립되었다고 주장한다(장유정 앞의 논문(2004a), 116~120쪽). 하지만, 1908년 당대는 이미 경시청이 기생조합 설립을 법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로 공식 자료(기생, 창기 관련 서류철)에 명기되지 않은 기생조합을 상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한성창기조합 관련 공식서류철과 한성기생조합 관련 신문기사의 대조를 통해 이들을 같은 조합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 《황성신문》 1908년 기사에 등장하는 박한영은 1914년 2월 18일자, 《매일신보》 「예단일백인」, 18번으로 소개된 오궁골의 명기, 춘외춘의 기부로 소개되고 있는데, 당대 영향력 있는 기생의 기부 중의 1인으로 추정되나 실제로 그가 기생조합 설립을 주도한 공식문건은 신문기사 외에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가와무라 미나토 역시 단지 《황성신문》 1908년 10월 27일 기사에 의거하여 기생조합의 효시를

III. 기예와 섹슈얼리티의 분화

1. 무부기/유부기

1908년 경시청령의 선포 이후, 기생조합의 이름으로 재배치된 기생들은 이전까지 일대일의 방식으로 기생들의 삶에 관여하고 관리해왔던 기부(妓夫)와의 관계를 청산하기를 요구받았다. 국가소유물이었던 기생에게 있어 기부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지방 교방에서 가부가 뛰어난 자를 서울로 뽑아 올려 3년간 복무케 하였던 선상기 제도도 운영된 여악은 현실적으로 서울로 선상되는 외방여기들의 숙식 제공 및 매니저로서의 기부를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또한, 초기의 기부(기생서방)는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성격이 강한데,³⁶⁾ 이는 일차적으로 빈약한 물적 토대 아래에서 연회 참석 등의 기업(妓業)을 수행해야 했던 기생들의 생존 조건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던 기부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공식문화 속에 등장하게 된다. 18세기 전후 서울의 경우, 궁중진연에 참가한 일급관기들이 궁중의 연향에 참석하는 주 임무 외에, 민간의 풍류현장에 투입되면서 새로운 유흥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민간 차원의 각종 풍류공간에 동원된 관기들을 관리하고 연행을 증개하는 역할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특정계급(중인층)으로 구성되었는데 근세 기부집단으로 알려진 ‘사처소 오입장’이 바로 그들이다.³⁷⁾

추정하고 있는데(川村湊(자)/유재순(역), 『말하는 꽃 기생』(소담출판사 2001), 169 쪽, 이는 충분한 자료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피상적인 진술이라 볼 수 있다.

- 35) 이능화에 의하면, 시골에 있는 기생은 서방이 없고 대신에 주인으로서 기생어미가 있었던 반면, 진연을 위해 서울에 올라온 기생들이 도성에 계속 머물면서 기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李能和 앞의 책, 436~439 쪽. 강명관 역시 기생이 지방에서 선상되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존재로서 기부의 기원을 지적하고 있는데, 당시 기부는 후배(後陪, 조방군 助幫君), 애부(愛夫) 등으로도 불리었다고 한다(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소명출판 1999), 183 쪽).
- 36) 기부에 대한 기록이 공식 자료 속에도 간간히 드러나는데, 연산군 때 <妓女寮>을 만들어妓의 의복을 담당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고(『연산군일기』 권54, 10년 7월초, 현문자 「李朝 妓女制度和 生活研究」, 『아세아학보』, 10집(1972). 267~268 쪽에서 재인용), 숙종 때 서적 『典錄通考』에 “樂을 익히는 날과 仕進하는 날에 결석하는 기녀는 그 서방까지 推問해서 죄를 가한다”는 기록이 있다(李能和, 위의 책, 437 쪽에서 재인용).

그런데 이 시기 기생의 기부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들은 경제적 후원자로서 또는 숙식제공자로서의 기부의 역할을 넘어서,³⁸⁾ 기생의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공급하는 매개자로서 당대의 유흥 문화 형성에 긴밀히 관여하게 된다. 먼저 이들은 기생의 기예와 관련하여 가무활동을 중개하는 공연 매니저 역할과 기생들의 가무를 가르치는 선생 역할도 한 것으로 보인다.³⁹⁾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은 기생의 섹슈얼리티가 보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8세기 자료들에서 기생과 기부가 함께 운영하는 ‘기방’ 공간을 통해 확인된다.⁴⁰⁾ 이때 기부는 기생의 남편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상업적으로 기생의 성을 중개하는 포주로서의 기능이 발견된다.⁴¹⁾ 하지만, 전근대 시대 기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미분화된, 통합적인 얼굴을 하고 있으며 당대 예술 및 유흥 문화 유통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일대일 관계에 있었던 기생에 대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37) 사처소 오염장이란 궁중 내 각전 별감, 포도군관, 정원사령, 금부나장, 궁가척리의 겸인 및 무사로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기부는 주로 대전별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박계형, 앞의 책, 107쪽). 근세 기부에 대한 논의는 강명관, 앞의 책 183쪽 참조

38) 경제적 후원자로서의 기부의 오랜 관습은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남성이 동기(童妓)의 머리를 얹는 풍습에서 잘 나타나는데 이는 조선시대와 근대시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식민지 시대 소리기생 박록주의 회고록에서도 대구권변에서 16세에 화초머리를 얹은 이력이 제시되고 있다 《한국일보》 1974년 1월 12일.

39) 권도희, 앞의 논문(2003), 20쪽 그런데 기부에게 있어 가무활동의 매니저나 가무 선생으로서 역할들은 19세기 중반 이후로 점차 분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민간 풍류문화를 주도했던 가객 안민영의 경우, 자기 자신이 뛰어난 예인일 뿐 아니라 당시 최고의 예능인들 악공 기생(唱者)을 동원하여 왕실과 여항의 음악 연행 무대를 형성하는 매니저 역할을 하였는데 그는 전국을 돌면서 재예가 뛰어난 기생을 평가하고 선발하며 민간 음악 공연을 매개했던 존재이다(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1999), 62~66쪽) 이러한 중인층 가객의 경우는 직업적 기부와는 달리 당시 기생들과 사적으로 교류하며 예술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 기예를 바탕으로 한 남성예인집단은 근대 시기에 권변의 학예부, 가무 선생의 맥을 잇게 된다

40) 조선후기 기방에 대한 논의는 강명관, 앞의 책, 159~188쪽 참조

41) 기부(기둥서방)에 대한 기록은 이난향의 회고록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무렵 기생의 지도 감독은 기둥서방이 맡았다. 기둥서방은 평시에는 서방이지만 양반이 불러 동침하길 원하면 분단장 곱게 해서 바쳐야 했고, 빈객이 잘 때에는 아궁이불까지 때주어야 했으니 서방치고는 최하서방이었다. 뿐만 아니라, 기생이 손님에게 실수를 하면 기둥서방이 대신 벌을 받아야 했으니 “네 이놈, 기둥서방으로 제집을 얼마나 잘못 가르쳤기에 손님 앞에서 이렇듯 방자하나 하고 호령에 불기를 맞기도 하였다”(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동양방송 1977), 593~594쪽.

이렇게 전근대 시대 기생과 기부와의 관계는 전근대 기생 문화를 작동시켜 온 실질적 축으로서 근대 초기에 기생들은 삼패와 관기 할 것 없이 대부분 유부기들이었다. 하지만 근대적 형태의 기생조합이 형성되면서 기생을 성적으로 장악하고 전근대식의 매음의 고리를 형성하였던 기부는 새로운 제도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된다.⁴²⁾ 당시, “기생에 관한 유고조항”에는 유부기에 대해 ‘본 위업(爲業)이 부녀의 節操를 보존하기 힘들고 夫가 있으면 절조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인도상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들어 기부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정한다(『書類綴』(152~153, 168)).

이렇게 식민지 법령은 이러한 기생과 기부의 전근대적 관계망을 제거하고 조합이라는 근대적 형식으로 기생을 재편하고자 했으나, 실질적으로 전대(前代)의 기방 풍습을 주도해온 기부의 존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⁴³⁾ 이러한 유부기의 전통은 1910년대 활동한 광고조합이나 1917년 이후 권번으로 개칭한 후의 한남권번, 한성권번과 같은 유부기조합을 통해서 지속되는데, 당시 가무로서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장안의 일급기생들을 소개한 《매일신보》(1914. 1. 28~ 1914. 6. 16) 「예단 일백인 기사」나 각 권번의 기생들의 이력을 사진과 더불어 기록한 『조선미인보감』(1918)에는 이러한 유부기들의 기부와의 관계가 잘 나타난다⁴⁴⁾

42) 「기생에 관한 유고조항」에는 유부기에 대해 ‘본 위업(爲業)이 부녀의 節操를 보존하기 힘들고 夫가 있으면 절조를 훼손하기 쉬우므로, 인도상 이를 허가하지 않는다’는 구실을 들어 기부의 존재를 부정한다. 또한 취업 연령 제한으로 한국의 결혼 연령인 15 세에 맞추고 화대는 기존에 시간에 관계없이 4~5원 받던 것을 1 시간 당 계산하는 것으로 새롭게 규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운영 체제가 제시된다(『書類綴』(168~169)).

43) 송방송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한성창기조합의 경우, 기부들의 역할이 해외공연을 떠날 때 더욱 분명하게 가시화되는데, 1910년 5월 11일, 김향운 외 7명의 기생과 8명의 기부가 동반하는데 이들은 공연과 관련된 제반사항 및 일본 측과의 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것으로 보인다(송방송, 앞의 논문(2003a), 81, 99~106 쪽 참조).

44) 1914년 《매일신보》 「예단일백인」 기사에 등장하는 기부를 살펴보면 1번 비봉 서남순 3번 채련/이학로, 4번 화홍/이경백(李景伯), 6번 계삭 이영준 8번 월중삼 최장호 10번 난홍 김길현 13번 조산월/엄순모, 14번 오금향/이경백(李景伯), 15번 채경 김대용, 18번 춘외출 박한영 23번 명주/김현구, 28번 금홍/홍중찬, 41번 권익 박춘재, 43번 옥화 김윤식 49번 채익 김필숙 61번 향실 홍창근, 64번 도화/김명완, 70번 통옥 안일성, 93번 화영/이범규, 94번 화향 김중화 97번 단주 김태연, 99번 진홍 전기준 등 총 22명의 기부가 등장하는데 이들을 1908년 경시청 서류철 관기문건에 나오는 기부들과 대조해보면, 서남순, 김현구, 엄순모, 김윤식, 김태연, 그리고 <경성유녀조합> 설립을 주도했던 삼패 기부 김명완 등의 이름이 발견된다.

《매일신보》, 「예단일백인기사」 중, 10번에 해당되는 란홍(蘭紅)의 기사(1914. 2. 6), “고향은 진주요, 방년 이십 십삼세부터 진주에서 동기로 지내다가 십오세에 경성으로올나와, 오궁동 김길현의 집을 처소로 정하고, 광고기생조합에서 가무를 배호는데”는 당시 유부기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 준다⁴⁵⁾ 그런데 《매일신보》, 「예단일백인기사」를 보면, 4번과 화홍(1914년 1월 31일 기사)과 14번 오금향(1914년 2월 14일 기사)은 동일하게 다방골(下茶洞) 李景伯을 기부로 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방골 십칠오통 호 골목을 드러서면, 막다른 집에 유리장명등이 첨하에 높이 달녀잇는 곳에, 유리조각에 이경백(李景伯)이라 대서특필하얏스니 그문으로 쏙 드러서면, ‘이리오너라’ 하난 소리에 삼척동자가 나오면 ‘어대서 오셨습니가,’ ‘화홍이잇네’(《매일신보》 1914년 1월 31일).

기부들은 대개 기생들과 일대일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논의되고 있지만,⁴⁶⁾ 위 기사에서와 같이 기부의 이름을 내건 집에 여러 기생들이 소속되어 거주했음도 확인된다. 또한 기부와 기생과의 관계는 지속적이지 않고 바뀌는 경우가 많았음을 1908년 경시청 서류철 ‘官妓 문건’에 나오는 기생과 기부 명단과 1910년 ‘한성창기조합’도일공연 기생 및 기부 명단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 두 문건에는 6명의 기부가 동일하게 등장한다. 이 중에서 최태순과 강영흡은 각각 향운과 이화의 기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두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김운식, 김태원, 최기호의 경우는 새로운 기생과 기부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두의 경우, 1908년의 주소가 1910년의 주소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유부기들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기생들은 기부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업(妓業)이 가능하였던 전통적 시스템을 따르면서, 동시에 새로운 기생

45) 이는 1918년에 발행된 당대 권번 기생들의 프로필을 모은 『조선미인보감』에도 잘 드러난다. 1918년 당시 권번소속 기생 605명이 소개되고 있는데, 네 권번(한남, 한성, 대정, 경화)의 경우 무부기조합으로 알려진 <대정권번> 소속 기생이 181명인 반면 나머지 유부기 조합인 <한남권번> 79명, <한성권번> 187명, <경화권번> 40명이 모두 306명으로 무부기보다 거의 1.5배가 넘는다.

46) 강정숙, 앞의 논문, 203쪽.

의 환경으로서 요구된 기생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이중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시청 서류철 ‘官妓 문건(1908년)	경시청서류철 ‘한성창기조합’ 도일공연 (1910)
崔泰順(향운)/ 夜珠峴 22統 3戶	崔泰順(金香雲) / 西部五宮洞 31 統 4 戶
姜瑛欽(梨花) / 曲橋 13統 1戶	姜瑛欽(金梨花) / 西部農圃洞 14 統 2 戶
金明元(1908년 경성유녀조합 발기인중 1인)	金明元(蘆採玉) / 中部布塵凌洞 13 統 2 戶
金潤植(연홍)/ 紫洞 96統 5戶	金潤植(金桂香) / 西部五宮洞 32 統 4 戶
金泰源(혜옥)/ ?洞 23統 2戶	金泰源(趙玉仙)/ 西部中芳橋 27 統 9 戶
崔基鎬(산홍)/ 夜珠峴 44統 4戶	崔基鎬(鄭山玉)/ 西部亭子洞 58 統 4 戶

하지만, 이러한 기부의 존재는 근대적인 시스템인 조합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으며, 한편으로 기부와 기생의 모호한 관계와 의존성은 기생을 창기로 귀속시키는 크나큰 걸림돌이었다. 특히 기생들의 몸을 상품화하는 포주이기도 하고 기생들을 첩처럼 관리하는 기부와 기생의 관계는 공식적인 시선에서 풍속을 저해하는 요소로 비난받게 된다.⁴⁷⁾ 또한 이 시기에 기생들이 기부를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기업(妓業)을 하고자하는 움직임이 일어난다

근일에 무부기가 점점 확장이 되야, 평양셔 손꼽이 가던 기싱이 모다올라와셔, 영업장을 맞는다지[茶洞生] 평양기싱도, 만이올나왔스려니와 이왕 유부기로 기야금 잘하고춤잘추고노리잘부르던 산월(山月)이도 무부기영업장을 맞았다 논걸[一纏頭] 그나그썩인가 시곡 기싱으로 성명이 일시 자자하던 룡선(弄仙)이도 무부기여업장을 맞았는데, 일흠을 룡주(弄珠)라고 곳치고 식로 가무음을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걸[傳問生] 자 그러하면 당초에 무부기라는 것을 처엄 발기하야, 고심열정으로 주선하던 련심(蓮心)이가 인제는 목덕을 들하게 된모 양이오구려[一過客] 무부기가 그와긋치 확장되는 중 은근히 당파가 잇셔 산월이 이하 삼스명은 남도스름인데, 남도기싱들은 별로히 한조합을 성립홀 경륜이

47) “花柳界에 嚴諭 기싱영업에 덕후설유 작일 오전 십시에 북부경찰서에서 관너에 사는 기싱포주(抱主)이니 소위 기부등을 소집하야 설유하기를 조선의 기싱이라하는 것은 각포주들이 몇십원, 몇백원씩 주고 소셔, 일변으로는, 기싱영업도 하며, 일변으로는 첩모양으로, 다스리고사는 폐습이 잇스죽”(《매일신보》 1912년 7월 14일).

라는 전설이 있스니과연인지오「一間生」[하락](《매일신보》 1912년 10월 23일).

위 기사에서 관기 출신의 기생 뿐 아니라 시곡 삼패 기생까지 기부를 거부하고 무부기로 변신하고 있는데, 이는 식민지 당시 기생의 근대적 체험과 관련된다. 창기로 획일화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거부하고 가무의 수준을 높이려는 예인으로서의 자각은 전대의 기생으로부터 벗어나는 근대 기생의 새로운 일면을 제시한다.⁴⁸⁾

이러한 평양기생들이 중심이 된 무부기들의 움직임은 1913년경 다동조합(대정 권번의 전신)을 설립하게 되는데 기생들이 무부기로서의 조합 창설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면에서 기생과 창기의 재분류가 가져오는 혼란 속에 강제적인 방식으로 구성된 초기 ‘한성창기조합’과는 차이를 보인다.⁴⁹⁾

기부의 제거는 일차적으로 기생조합을 통해 기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던 식민권력의 욕망과 맞물리지만, 이러한 변화가 기생들 내부에서 발아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한 기생들의 환경의 변화는 보다 적극적으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기생조합이 기존의 기부의 역할, 즉 기예의 선생 역할과 가무활동의 매니저 역할을 대체하게 되면서, 기생의 성을 파는 포주 역할과 기생의 남편 역할까지 하였던 전근대 기부는 점차 부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일부 기생들은 그러한 기부의 횡포나 간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벗어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神聖한 自由의 風은 花柳界까지도 불기를 始作하여 비록 賤業을 할지라도 自己의 自由業으로 하라는 思潮가 澎湃하여 或은 好誼로 혹은 爭訟으로 抱主修養父母 等과 分離하여 大概 所謂 無夫妓와 自由業을 하게 되

48) “진주(晋州)는 종적으로 절터가인이 만하나 난 곳으로, 현금도, 슈빅여명의 기싱이 잇서 년전부터 건강진단을 맞으나, 예기와 창기의 구분이 확실치못하고, 즈연 깍에 덕후야 불경흠이 만히 잇더니, 금번 모유지자가 사교상(社交上) 불소히 응용되는 기싱으로, 도료혀 깍에 덕후야 불쾌 不快 흠을, 감케흠이 심히 깍석 후야, 소속관청과 협의후 감중 기싱을 슈명으로 더부러 자치덕(自治的) 조합을 설립 계획 중이라더라”(《매일신보》 1913년 2월 6일). 무부기조합 설립에 대한 논의는 김영희, 「《매일신보》에서 찾는 한국춤사(13): 광교조합과 다동기생조합」, 『몸』 2002. 7 참조.

49) 김영희는 1913년 경 설립된 광교조합과 다동조합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주도의 기생조합이 아니라 기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 속에서 조합을 설립하였다는 점과 예기로서의 품격을 찾으려했다는 점, 그리고 다동조합의 경우는 단순히 평양출신의 기생들의 수가 증가한 점 외에, 기부로부터 해방되어 보다 자율적으로 기업(妓業)을 행하고자 했던 기생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김영희, 위의 글, 40-43쪽).

았다. 此가 近來 京城 花柳界의 一大革命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⁵⁰⁾ 기부는 특정 기생을 관리하는 개인 남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운영시스템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생체도가 사라질 때까지 기부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였지만, 식민지 시대 무부기의 탄생은 기생 스스로 전근대적 방식의 성적 예측이 지니는 모순을 인식하고 근대적 예인으로서의 자각을 동반했다는 면에서 그 의미를 갖는다.⁵¹⁾

2. 소리기생/화초기생

한말에 가시화된 일패, 이패, 삼패의 위계가 점차적으로 무너지면서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 기생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제시된다. 기생조합의 무대 공연활동과 요리집 놀음과 같은 상업적 공간 속에서 놓여진 기생은 이제 소리기생과 화초기생이라는 이분법 속에 놓이게 된다. 예기의 전통에서 ‘화초기생’이란 얼굴이 곱고 자태가 아리따운 것만 앞세우고 재주는 없는 기생인 반면, ‘소리기생’이란 남도소리, 서도소리, 경기소리, 무용, 서화 등에 능했던 재능 있는 기생이다 “화초리맞은 기생이라야 쓴다”라는 말은 예도를 정통적으로 선생 앞에서 배운 기생을 높이 평가하는 말이다.⁵²⁾

전근대 시대에 일급관기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던 ‘색예(色藝)’는 이제 분리되어 화초기생과 소리기생이라는 이분화를 낳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근대 이후에 기생의 기예가 점차 색슈얼리티로부터 분리되어 근대 예술 문화계로 편입되거나 대중문화가 요구하는 새로운 엔터테이너로 전이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말까지 유지되었던 일급관기의 전통은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 소리기생의 이름으로 예인의 명맥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은 권번 내 학예부(기생양성소)에서 고된 훈련을 통해 기예를 획득하고 나아가 교양과 품격을 유지하도록 요구받았지만, 다수의 기

50) 一記者, 「京城의 花柳界」, 『개벽』, 1924. 6, 97쪽.

51) 식민지 시대 제도적 재편과정 속에서 기생들은 빈번한 집단적 대응을 통해 권익을 확보하고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기생조합의 다면적인 성격과 『장한』 잡지 발행 등의 문제는 다른 지면을 통해 기술하고자 한다.

52) 김천홍, 『심소 김천홍 무악 칠십년』(민속원 1995), 124 쪽,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정음사 1985), 264 쪽

생이 선택한 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³⁾

하지만 소리기생으로 명성을 얻은 일부 기생들은 전대(前代)와 다른 형태의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이들은 대중의 지지를 바탕으로 명창(名唱)의 이름을 획득하면서 예술가적 입지를 높일 뿐 아니라 요리집이나 극장 무대에서 자신의 상품적 가치 또한 획득하게 된다. 남성들이 주축이 되는 판소리 명창(名娼)들이 등장하였던 19세기 중반 이후에 이미 최초의 여류 판소리 명창의 기원이 발견되지만⁵⁴⁾ 이들이 근대적 형태의 예인으로 공인받는 여류명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1930년대에 이르러서야 가능하게 된다. 소리기생들이 예인으로 독립하게 되는 것은 기생 조합(권번)을 이탈하고 예술적 전문성을 추구하는 예술단체에 가입한 이후에야 가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즉 기생집단이 전근대와 식민지 시대에도 전통가무를 계승하고 전문적 훈련을 한 여성 예인을 양산한 토대로 자리하였지만, 순수한 예(藝)의 획득은 ‘기생’이라는 존재성을 버리는 과정에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⁵⁶⁾ 한편, 당시 기예로 이름을 날린 권번 소리기생들은 극장무대나 요리점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이나 음반

- 53) “권번에 이름을 올린 모든 기생이 의무적으로 배워야하는 것은 아니었고 출석제도 없어 게으른 축들에게는 편리했으나 후에 명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다”(이난향, 앞의 글, 579쪽).
- 54) 여류광대의 효시로 철종, 고종 때 전북 고창 출신의 名妓 彩仙으로 신재효의 지침을 받아 음률과 가무뿐 아니라 판소리를 특출하게 잘 하였다고 한다. 이후, 許錦波 姜小春을 이어 甲午년 이후에 등장한 金綠珠, 裴雪香, 李花中仙, 金楚香, 金秋月, 申錦紅, 朴綠珠, 金如蘭, 林小香 등이 당대 이름을 떨친 여류명창이라 할 수 있다(정노식, 앞의 책, 234쪽; 魚鳥同室主人, 「朝鮮광대의 史的 發達과 그 位置」, 『조광』, 1938. 5, 324~326쪽).
- 55) 1930년에 발족한 <조선음률협회>는 최초의 판소리 공연 단체이자 전문음악집단으로서 당시 국창(國唱)으로 알려진 전통 음악의 원로와 현역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조선권번 및 한성권번의 예기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1934년에 <조선성악연구회>로 이어지는데, 협률사 원각사의 흐름을 잇는 근대적 형태의 전통음악 공연단체로서 그 의의를 지닌다(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1990), 11~46쪽) 특히, ‘명창대회’라는 이름 속에서 공연하게 되는 권번 기생은 전근대적 여성 예인으로서의 ‘명창(名娼)’이 아닌 근대적인 예술가로서의 ‘명창(名唱)’의 일부로 편입되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 56) 권도희의 연구에 의하면, 1930년대 전후로 권번의 음악계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점차로 상실되고 유흥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정작 예술적으로 완숙기에 접어든 기생들은 기생조직 내에 수용되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이 시기에 예술적 성취가 높았던 기생 가운데 일부 기생들은 남도기생출신을 중심으로 권번을 이탈하여 전문음악가 조직으로 들어가 활동하였다고 한다(권도희, 앞의 논문(2002a) 참조).

과 같은 새로운 대중 매체를 통해 기예를 상품화하면서 대중문화의 주인공으로 자리하게 된다.⁵⁷⁾

기생들이 유성기 음반을 취입하면서 전통음악뿐 아니라 신민요나 유행가와 같은 대중가요를 부름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가수로 변신하게 되는데, 이는 기생과 삼패라는 전근대 가무음곡의 전수자들이 도시 대중의 취향을 충족시키는 근대적 레파토리로 전향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탈바꿈하는 지점이기도 한다.⁵⁸⁾ 나아가 일부의 기생은 영화배우로 변신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기생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전통 기예가 아니라, “어떠한 역을 소화할만한 재능, 영화배우로서의 몸 전체의 자세와 色氣, 영화배우로서의 기지와 교양”과 같은 대중 문화산업이 요구하는 자질들을 공급하게 된다.⁵⁹⁾

이렇게 식민지 근대에 기생의 몸을 구성했던 기예와 섹슈얼리티의 분화는 순수 예술과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전이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기생의 존재양식을 양산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자본을 매개로 한 산업적 메카니즘 속에 편입되면서 일반 대중이라는 새로운 향유층을 대상으로 하여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격 향락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⁶⁰⁾

IV. 맺음말

여악이 붕괴되고 기생조합이라는 새로운 형식 속에 재배치되었던 기생은 전대(前代)의 신분적 연속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유희의 매개자로서

57) 권번의 예기들은 1926년 경성방송국 개원 때부터 방송매체를 통해 음악수요층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1927년 경성방송국 설립 이후, 1935년 경성방송국의 확장과 지방방송국 개설을 계기로 명창으로 이름난 일부 소리기생들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여 활발한 활동을 보인다(송방송, 앞의 논문(2000), 103쪽; 이재옥, 앞의 논문, 622~625쪽 참조).

58) 당시 대중가요 가수로 각광받게 된 기생들에 대한 연구는 장유정, 앞의 논문(2004b), 27쪽 참조.

59) 박기체, 「청아한 백합 문예봉 양, 『조광』 1937. 10, 191쪽. 일제시대 명월관의 기생들은 초창기 영화의 주요관객이자 여배우 물망의 1호였다고 한다(정중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1(1905~1954)』(영화당, 1997), 25쪽). 당시 권번은 그 내부에 연예부를 설립하여 영화와 같은 대중문화 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기록이 발견된다(김종원·정중현 『우리영화 100년(현암사 2001), 135쪽.

60) 근대 대중문화 산업 속에서의 기생의 입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후속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의 자신의 입지를 새롭게 구성해야하는 혼란스러운 지점에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매춘부로 바라보는 근대의 공식 시선과 식민 권력의 제도적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들의 몸을 구성하는 기예와 섹슈얼리티를 새롭게 성찰할 것을 요구받았다. 기생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에서 가장 초점이 되는 것은 이전에 분화되지 않았던 예(藝)와 섹슈얼리티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 속에서 일부 기생들은 예(藝)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자신의 기예와 몸을 대중문화의 기제로 활용한 기생들은 대중의 감성과 기호에 호소하는 가수과 배우로 변신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근대적 메커니즘에 대응하여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던 소수의 기생들이라 할 수 있다. 점차 상업화되어 가는 요릿집 안팎에서 대부분의 기생들은 접대부로 고착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화대라는 형식을 통해 철저하게 상품적 가치를 높여야만 하는 당대 기생들의 생존 조건에 기인한다.

당시 기생 내부의 수입의 편차는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1930년대 초에 吉川萍水가 쓴 조선 기생을 다룬 풍속지 「妓生物語」는 당시 경성부 소득세 부과 기준 조사표에 근거하여 기생 1인당 실수입은 평균 약 650 원으로 한달에 50~60 원 정도이지만 기생들의 수입은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연 수입 천 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 15% 정도이지만, 평균 이하인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또한, 함께 제시된 <大每 朝鮮版> 기사는 1930년대 초, 평양 기성권번의 경우, 월수 350원의 거금을 버는 기생도 있었지만 화대 수익을 권번과 요릿집에 공제하고 받은 실수령액이 한 달에 65 전밖에 안 되는 극빈층 기생도 1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⁶¹⁾

이렇게 식민지 시대 권번 기생들 내부에는 크나큰 간극이 존재하였다. 15% 정도의 성공한 기생들이 새로운 형식으로 자신의 삶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나머지 많은 기생들은 유흥 공간 속의 접대부로서 사회적으로 주변화되거나 경제적 궁핍에 의해 사창(私娼)으로 전락했던 것으로 보인다.⁶²⁾ 이러한

61) 吉川萍水, 「妓生物語」, 『韓國地理風俗誌叢書(178): 古蹟と風俗 朝鮮風俗資料』(경인문화사 1999), 151~153쪽. 당시 신문기자나 교원, 일반 샐러리맨의 평균월급은 50~60원 정도였다.

62) 특히 1910~20년대의 전성기를 지나 1930년대 이후의 요릿집은 불경기 속에서 더욱 상업적이고 퇴폐적인 방향으로 치닫게 되고 이는 기생의 사창화(私娼化)를 가속화시키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동아일보》 1925년 8월 29일자 「우습팔고 병주는 화류촌의 여성군」이라는 기사는 일년 동안

정황들은 근대기생이 자본주의적 대중소비문화의 매개가 되거나 성산업에 의해 착취당하는 구조 속에 놓여있었음을 시사한다.

‘기생과 창기,’ ‘기예와 섹슈얼리티,’ ‘소리기생과 화초기생’ 등은 전근대 시대에 미분화된 채 ‘기(妓)’라는 이름 속에 작동되었던 두 얼굴들이다. 식민지 근대에 이르러 이 두 축은 점차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 전자가 근대적 형태의 예술 또는 대중문화라는 코드 속으로 편입되었다면, 후자의 극단은 기예가 소거된 무수한 사창(私娼)의 형태로 전락하였으며 이들은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 속에 흡수되는 지점을 제기한다.

이렇게 기생의 존재론적 변이는 일차적으로 식민지 근대라는 시공간의 역사적 산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내부는 당대의 갖가지 시선과 욕망의 그물을 관통한 기생의 체험들을 담고 있기도 하다. 기생의 몸에서 일어난 근대적 분화는 전대(前代)의 여악(女樂)의 흔적들을 이으면서도 한편으로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양식의 존재들을 양산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기생이라는 존재는 분열되고 결국 역사적으로 소멸될 수밖에 없었던 역설을 보여준다.

참고 문헌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매일신보》, 《제국신문》, 《朝鮮總督府官報》, 《황성신문》, 《한국일보》.

강명관, 『조선시대 문학예술의 생성공간』 서울 소명출판 1999.

강정숙, 「대한제국·일제초기 서울의 매춘업과 공창 제도의 도입」 『서울학연구』 11호 1998, 197~237쪽.

권도희, 「19세기 여성음악계의 구도」 『19세기 음악사회』 제 1회 동양음악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

각종 화류병에 걸린 여성 중 일본인이 8,181명(창기, 5,513명, 예기 1,171명, 작부 1,497명)이며 조선인이 총 6,031명(창기 3,728명, 예기 740명, 작부 1,866명)이라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매음을 불허하는 예기 중에도 일천구백여명이나 화류병자가 있게 됨은 일반이 경계할 바이라는 바 그는 당국자들의 예기밀매음 취태를 태만히 한 까닭인 듯 합니다”라는 진술은 당시 요릿집의 예기(일본인)와 기생(조선인)들이 사창(私娼)에 깊이 연루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1920년대 중반 이후의 기생의 사창화 및 일제 공창 속으로의 편입문제는 손정목, 앞의 책, 462~165쪽 참조.

- 논문(2003. 9. 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b.
- 권도희, 「20세기 기생의 음악사회사적 연구」. 『한국 음악 연구』 29권 1호, 2001, 319~344쪽.
- 권도희, 「기생조직의 해체이후 여성국악인들의 활동」. 『제7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 안팎에서 본 한국음악연구 방법론』,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a.
-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 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권행가, 「일제시대 우편엽서에 나타난 기생 이미지」. 『미술사논단』 12호, 2001, 83~103쪽
- 권희영, 「호기심어린 타자: 구한말~일제 시기의 매춘부 검진」. 『사회와 역사』 65집, 2004, 101~131쪽
- 今村軀, 「朝鮮の賣春婦」. 『朝鮮風俗集』. 서울: 경인문화사, 1990.
- 吉川萍水, 「妓生物語」. 『韓國地理風俗誌叢書(178): 古蹟と風俗朝鮮風俗資料』. 서울: 경인문화사, 1999.
- 김성혜, 『조선성악연구회의 음악사적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0.
- 김영희, 「“藝壇一百人”기사 중 기생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10권 2호, 1999.
- 김영희, 「《매일신보》에서 찾는 한국춤사(1~20)」. 『몸』 2001.7~2003.4.
- 김종수, 「19세기~20세기 초 궁중연향의 악가무차비(樂歌舞差備) 고찰 여령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32집, 2002.
-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 연구』. 서울: 민속원, 2001.
- 김종원·정중현, 『우리영화 100년』. 서울: 현암사, 2001.
- 김천홍, 『심소 김천홍 무악 칠십년』. 서울: 민속원, 1995.
- 박기채, 「정아한 백합 문예봉 양」. 『조광』 1937. 10.
- 박제형(저)/이익성(역), 『근세조선정감』. 서울: 탐구당, 1974.
- 山下英愛, 『한국 근대 공창 제도 실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논문, 1991.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편), 『서울학 사료총서 7: 총무처정부기록보존소 편(I)』.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5.
- 손정목, 『일제 강점기 도시 사회상 연구』. 서울: 일지사, 1996.
- 송방송,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예기들의 공연활동: 192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관계성경린선생수순기념 국악학 논총』. 서울: 국악고등학교동창회, 2000, 93~111쪽
- 송방송, 「대한제국 시절의 진연과 관기들의 정재공연 『고종신축년진연의례』의 정재여령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사학회 논문집』 1호, 2003b, 101~146쪽.
- 송방송, 「한성기생조합소의 예술사회사적 조명」. 『한국근대음악사연구』 서울: 민속원, 2003a, 73~110쪽
- 송연옥, 「대한제국기의 <기생 단속령>, <창기 단속령>: 일제 식민화와 공창제 도입의 준비 과정」 『한국사론』 40호, 1998, 215~275쪽.

- 송지원, 「여성음악가 계선」. 『문헌과 해석』 23 호, 2003, 32~38 쪽
- 신경숙, 「19세기 일급 예기의 삶과 섹슈얼리티」. 『사회와 역사』 65 집, 2004, 41~73 쪽
- 신경숙, 「안민영과 기녀」. 『민족문화연구』 10, 1999, 57~86 쪽
- 沈魯崇(저)/김영진(역), 『桂織傳』. 『눈물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2001.
- 安玟英(저)/김신중(역), 『金玉叢韻 周翁漫詠』. 서울 박이정, 2003.
- 魚鳥同室主人, 「朝鮮광대의 史的 發達과 그 位置」. 『조광』 1938. 5.
- 이경민,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서울 사진아카이브연구소, 2005.
- 이난향, 「명월관」.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서울: 동양방송, 1977.
- 李能和(저)/이재근(역), 『朝鮮解語花史』. 동문선, 1992.
- 이보형, 「가객집단의 유형: 평민가객집단을 중심으로」. 『19세기 음악사회, 제5회 동양음악연구소 국
내학술회의 발표지』(2002. 9. 6), 서울대학교 동양음악연구소, 2002.
- 이재옥, 「1930년대 기생의 음악활동 고찰」. 『한국음악사학보』 30집, 2003, 587~631쪽.
- 이창배, 『한국 가창 대계』. 서울: 흥인문화사, 1976.
- 一記者, 「京城의 花柳界」. 『개벽』 1924. 6.
- 장유정, 「20세기 초 기생제도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 집, 2004a, 99~127 쪽
- 장유정, 『일제강점기 한국 대중가요 연구: 유성기음반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4b.
- 정노식, 『朝鮮唱劇史』. 서울: 조선일보출판부, 1940.
- 정종화,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1(1905~1954)』. 서울 열화당, 1997.
- 川村湊(저)/유계순(역), 『말하는 꽃 기생』. 서울: 소담출판사, 2001.
- 최은희, 『한국개화여성열전』. 서울: 정음사, 1985.
- 현문자, 「李朝 妓女制度和 生活研究」. 『아세아학보』 10 집, 1972, 234~269 쪽
- 恒屋盛服, 『朝鮮開化史』. 東京: 博文館, 1904.

● 투고일 : 2005. 4. 20.

● 심사완료일 : 2005. 5. 26.

● 주제어(keyword) : 기생(Kisaeng, female entertainer), 기예(artistic accomplishment), 섹슈얼리티(sexuality), 공창(state-regulated prostitution), 식민권력(colonial power), 기생조합(the association of Kisaeng), 기부(Kibu, the pseudo-husband and manager of Kisaeng), 근대대중문화(modern mass culture)